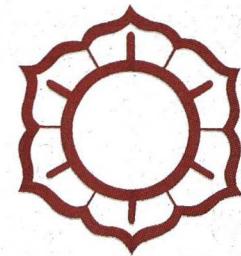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회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10월 1일
금요일
제60호

이 달의 종조법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자성불이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의 가능성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하면 깨치기 어렵고, 만약 생활중에 있다고 하다면 곧 승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모름지기 육락이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지나라.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종 제64회 추계 강공회

종단운영 방향과 정책 및 수행체계 개발



지난 제63회 춘계강공회에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하여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수행체계와 의식을 점검하고 있다.

총지종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님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추계 강공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운영방향과 현황을 조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개발 및 교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또한 수행체계와 불단의 장엄화 및 밀교적 의식체계 개발을 모색하며, 스승들에 대한 전법관정 수계식과 열반스승들에 대한 추선불사가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공회는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종단의 현황문제를 개선하고, 종무행정의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불단의 장엄화, 불사의식 및 수행체계 개발, 도제양성, 사원신축 등 총지종의 교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효강 종령의 추대 후 처음 맞이하는 강공회로 1년여 동안 사법과 교법을 관장하는 종령의 부재로 대두되었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청정한 계행과 수행으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포교

원정종조 24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참 대승인의 본분으로 밀법중흥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총지종 창종주 원정 대성사의 입적 24주기 추선불사를 봉행하였다. 특히 서울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

령, 우승 통리원장,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과 유가족, 교도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재무부장 시정 정사의



총조 원정대성사 24주기 추선불사에서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과 교도들이 참석하여 종조님의 유물을 받들어 용맹정진을 발원하고 있다.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종단 운영에 있어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언해 줄 것과 서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생의 악업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선업을 지어 내생에서 지어온 업장소멸을 위해 용맹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종전까지 강공회가 각종 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강공회의 운영형태를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년부터는 창종시에 시행되었던 강공이 스승들에게 사법을 전달하고, 스승들간의 선문답과 교리공부를 주로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전통을 살리기 위해 강공과 회의를 분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화령정사 불교방송 교리강좌

"현대인의 불교입문" 3개월간

총지종 화령 정사(법장원 연구원 : 철학박사)가 10월 11일부터 3개월 동안 불교방송(BBS)에서 교리강좌를 담당하게 된다. '현대인의 불교입문'이라는 대주제로 3개월간 계속될 이번 교리강좌에서는 특히 근본불교 위주로 불교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불자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를 담당하게 될 화령 정사는

"불교의 근본교리를 최대한 쉽게 이해

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

반영하여 물질 위주의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잘 못된 불교 상식을 바로 잡아 불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국 불교방송 넷워크를 통해서 방송되는 이번 강좌는 매일 아침 6시 5분부터 25분까지 20분간 방송되며, 같은 날 저녁 9시 5분에 재방송 된다. 라디오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은 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bbsfm.co.kr로 다시 들을 수 있다.

집공으로 개식사, 효강 종령의 추선사, 현화 및 훈향정공, 천수경, 유가삼밀, 창교가, 회향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지종 종령 효강 대승사는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휴일을 맞이하여 지난간 먼 일들을 생각하오며 추모의 정을 금 할길 없사오이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하옵고 이제 간소한 법식과 화과전을 이루었사오니 생존하실 때와 같이 강림하시고 흙향하시기를 서원한다."고 추선사를 올렸다.

이어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종단도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창종 당시의 열화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수행자로서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참 대승인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승직자는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승직자의 사명을 잊지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진을 하고, 교도들은 밀법의 수승한 종지를 빙들어 흔들림없는 신심으로 용맹정진하시기를 발원하다."고 밝혔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빙들기 위해 종조기념관을 건립하여 오는 11월 중순경 대외 귀빈과 사부대중을 초청하여 개관불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총지종보!

필월 한가위의 반보기

음력 8월은 농경민족인 우리민족에게는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달이다. 수확을 마친 사람들은 자연의 여유 신에게 수확에 대한 감사와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의 과정에서 축제로 이어지고 그 축제가 오늘날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추석 세시풍속으로 별초, 선포, 차례가 있고 그밖에 소놀이, 강강수월래, 올계 심니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반보기라는 눈물겨운 풍속이 있다. 지금이야 친정집 가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집 가기보다 더 쉬운 일일수 있지만 옛날에는 시집간 여자의 친정 나들이가 쉽지 않았다. 또한 요즘처럼 교통수단이나 전화와 같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있어 안부가 궁금하면 서로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집을 가면 여간해서는 서로 소식을 주고받기 힘들었던 데에서 생긴 며느리들을 위한 풍속이 반보기다. 추석날 전에 이미 친정에서 편지를 사둔 대에 뛰어 추석날 이후 날을 잡아 딸을 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정집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서 시댁까지의 거리를 어립잖아 중간지점에서 딸과 만나는 것이다. 지금말로 한다면 '추석맞이 며느리 특별휴가'인 셈이다.

평소엔 서슬이 펴렇던 시어머니도 추석날이 가까워 오면 며느리가 반보기며 입을 옷도 한 벌 지어 놓는 것이고, 그 해 농사에 따라 패물 한 가지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보기에 나설라치면 부엌에서 음식 한 가지라도 더 들고 나와 집 속에 뛰어 넣으며 "가서 즐겁게 놀다오너라" 하는 말 한마디. 그 때문에 며느리는 더 눈물이 난다. 친정어머니 역시 딸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이고 사돈댁에 보내고자 보따리마다 음식을 가득 담고 이고 지고 집을 나선다.

요즘은 오가는 일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딸들의 친정나들이가 오히려 예전 반보기보다 못하다. 저마다 차를 물고 후다닥 왔다가 후다닥 떠나버린다. 아침나절에 왔다가 점심밥을 먹으면 벌써 갈 걱정부터 한다. 길 막힌다는 광계로 왔다가 가기 바쁘다. 외손자 얼굴 익힐 겨를도 없다. 새로운 반보기 풍속이다.

죽비소리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 못하는 벌레를 사람이 미워하듯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 못하는 사문을 성현들은 걱정하는데 세상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천상으로 가는 데는 데는 계행이 가장 좋은 사다리이니라.

그리므로 계를 파한 이가 남의 복전이 되려 하는 것은 날개 부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나는 것과 같고 자기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남의 허물도 벗겨줄 수 없으니 어찌 계행없이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있으리

발행수행장, 종에서

제64회 추계강공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과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홍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3년 10월 18일(월) ~ 총기 33년 10월 21일(목)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사설

해이해진 국가관과 불자 사명

최근 어느 기업에서 개최한 이민, 유학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온갖 비합리적인 제도나 극심한 일시경쟁, 취업경쟁 등 앞으로 살아나가기에 우리나라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이나 유학을 가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당한 부유층들이나 지도층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삶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나라 국민이 되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민을 가서 더 나은 삶을 꾸려가면서 그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조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부를 유출하면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유학을 가서 선진 문물이나 제도를 익히고 돌아와 자신의 발전은 물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두렵고 이민을 위한 전 단계로서 유학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의식구조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국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현실 도피를 위하여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성공하고 멋진한 세대인으로 거듭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성공하든 못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큰 문제는 이들에 의해 국부유출과 해이해진 애국심의 사회적 여파에 있다. 또한 상당수 젊은이들이 이민을 가거나 도파성 해외유학을 부려워한다고 하는데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기회가 되면 외국에 가서 살겠다는 대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그것도 주로 생활환경이 나은 구미 쪽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는 여리 가지로 살기 어려우니 조국이야 어떻게 되든 살기 좋은 나라에 가서 편하게 살겠다는 발상이다. 구미의 나라들이 잘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보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만을 누리겠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나약한 발상을 하게 된 데에는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라야 어렵게 되든 나만 잘살고 보면 된다는 이기심과 배급주의, 권력지향주의에 젖어 젊은이들에게 바른 인생관과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번영에는 항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국가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것은 일제 36년 동안 이미 경험한 바이며, 세계 각 국가에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보트 괴짜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과 함께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유학연수비 지급이나 재외동포와 재산대출 등에 따른 국부 유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을 가장한 병역기피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국가관을 대변해 주는 현상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앞장서서 이러한 풍조에 영합하고 있는 현실은 나라의 장래를 매우 우습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민을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나라를 지키고 이 땅을 보전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1700년의 한국불교역사를 통하여 보아왔듯이 우리나라의 불교는 혁신을 강조해 왔다. 불교도들은 언제나 국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나라의 위급함에 솔선하여 앞장섰다. 애국심이 해이해지고 국가관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 불교도들이 이 땅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명심하고 작은 힘의 현상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미래 어둠 밝혀주는 등불되어”

총지종 종립 동해중 제37회 개교기념행사



◆총지종 종립 동해중 제37회 개교기념행사에서 우승 통리원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교장 강경중)의 제37회 개교기념 행사가 9월 24일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의강 동해중이사장, 강경중, 동해중교장, 동해중 동창회장, 육성 회장,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식식, 각종시상, 학교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내빈 축사, 교가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흥준웅 선생이 30년 근속

상, 김광무, 하봉걸 선생이 20년 근속상을 수상하였으며, 총지종에서는 이동락, 서지현, 최진용, 황성환, 최낙빈, 황운구군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우승 통리원장은 축사에서 “여기서 서있는 학생들은 내일의 일꾼이며, 주인공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역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생활하고 노력한다면 세계의 미래는 변화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계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넓은 가슴과 큰 꿈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혼연지기의 기상으로 모든 일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인내로 용맹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치를 스스로 체험하여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 정서적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의강 동해중 이사장은 “여러분은 세상이 급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순간의 고통을 참고 열심히 공부하여 내일의 밝은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큰 꿈을 이루어 가는 기백이 당당한 젊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함과 정이 메말라 가는 각박한 현실에 아름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라고 치사에서 밝혔다.

동해중 강경중 교장은 기념사에서 “한국 주변국가에서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슬기를 분발하여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 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사에서 대회식을 시작으로 ‘동북아불교에서 세계불교의 중심을 향한 삼국불교의 역할’, ‘삼국불교의 역사적 점검 및 미래의 발전방향’, ‘한중일 전통불교 수행법과 현대적 수행법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기조강연을 하며, 삼국의 불교의 발전을 통한 세계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며, 삼국의 교류를 통한 불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단은 중국 선중 10찰중의 하나인 영온사, 옥불사, 육회암 등 중국의 주요사찰을 순례하기로 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우승 통리원장, 시장 재무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회심 사회부장 등 6명이 참가하여 총지종을 포교하며 중국과 일본의 불교 대표단과 교류를 통한 상호 우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알림방

- 제64회 추계강공회를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합니다.
- 제7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를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립니다.
- 종조기념관 개관불사를 11월 중순경 봉행합니다.
- 만보사 법성정사 큰딸 김현경양의 출연연주회가 10월 29일 오후 5시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4년 8월 26일부터 2004년 9월 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개천사	김수향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정각사	박영숙	5,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화음사	강순란	5,000
개천사	신정희	100,000	밀인사	이연수	2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신영자	5,000	화음사	권정희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신우필	10,000	홍국사	길현숙	20,000
관성사	김병덕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무명씨	무명씨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이화수	5,000	실지사	박미선	5,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무명씨	무명씨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백월사	박삼준	5,000	실지사	이숙례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무명씨	무명씨	1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백월사	조화자	20,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무명씨	무명씨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백월사	지선주	10,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정각사	조현필	5,000	무명씨	무명씨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삼밀사	김종숙	10,000	운천사	이형란	2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안우진	안우진	10,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삼밀사	무상문	20,000	자석사	우바이	6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오윤보	5,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삼밀사	백진옥	30,000	정각사	강숙자	10,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조창환	20,000	
단향사	공철봉	2,000	삼밀사	일인해	20,000	정각사	김명진	20,000	혜정사	수증원	20,000	최순전	20,000	
만보사	박정심	10,000	삼밀사	황영업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남숙자	40,000	혜정사	조성기	10,000			
만보사	정쾌자	2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노점호	10,000	혜정사	조숙자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인사	김진	10,000	정각사	무명씨	2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웰빙문화시대 사원의 유휴 공간 활용으로 포교활성화

최근 웰빙문화의 열풍을 타고 각 사찰은 산사음악회, 명상체험, 요가, 자연과 하나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몸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포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각종 수행법과 체험이 웰빙문화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웰빙문화는 작년부터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웰빙(Well-Being)족은 몸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건강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강조한다.

웰빙 열풍은 ‘빠른’과 ‘성장’ 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거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건강, 휴식, 자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퍼온 문화코드 ‘웰빙’은 결국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아흐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대는 지났고 현재 중요한 학우는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최근에 요가, 명상, 스파,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유가동식, 사, 건강보조식품, 피트니스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유행하고 있는 것도 내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방편이다.

불교의 수행법인 참선, 명상, 요가 등이 바로 웰빙문화이다. 이러한 웰빙문화의 흐름을 타고 불교계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체험과 텁풀스테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총지종은 36개 사원으로 일부사원에서는 사원의 건

률 중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있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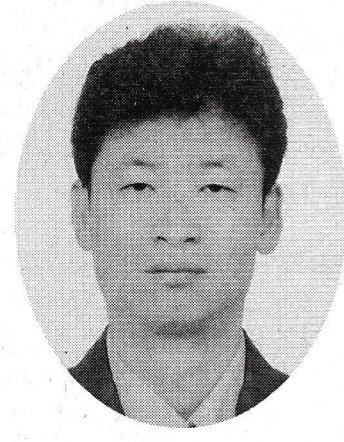
사원은 이웃과 함께한 자비 실현의 목적으로 대중들이 방문하여 수행정진하는 공간으로 세속의 생활에서 생겨난 번뇌와 고민을 해탈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위안을 찾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웃한 함께한 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개방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양대학 및 건강강좌, 경로잔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통밀교 종단으로써 밀교의 종흥을 표방하고, 오타악세의 정화를 기치로 탄생한 불교종단으로써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위치한 각 사원들이 지역에서 사회복지공간 마련, 오락,

총지칼럼

염세주의와 소극주의를 버립시다



김 종 인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布鲁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불교인들 가운데서는 불교가 염세주의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려들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학자들도, 일반신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인들의 실제적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려들 가운데는 매우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승려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구체적 행동이 어떠한가는 굳이 지면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례만 들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뜯은 종 광이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행과 파격적인 그림으로 매스컴으로부터 전

시수준은 참담하기 짜이 없습니다. 상업적 효과를 노려 그의 그러한 행동을 예술적 현재의 기행으로 포장하여 유명인 사로 만든 매스컴에 대해서 무언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매스컴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그를 불교를 빛낸 사람처럼 여긴 일부 불교계 인사들의 태도는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를 염세주의로 이해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 신도들은 그런 운동 없이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험경을 일이 닥치면 그것을 자신의 업보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구박해도 업보 탓이요, 자식이 망나니가 되어 속을 써여도 업보 탓이라고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매우 암시 바른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구속된

습니다. 정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강압적 방법으로 사람을 짐승 길들이듯이 길들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정화교육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신이 되었습니다. 일부 승려들도 병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이러한 법난을 받게 된 연유에 대해 상당수 승려들이 "우리 탓이오" 하였습니다. 각종 비행을 저지른 불교계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말 많고 사건 많은 불교계에 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강

압적 방법으로 사람을 짐승 길들이듯이 길들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정화교육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신이 되었습니다. 일부 승려들도 병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이러한 법난을 받게 된 연유에 대해 상당수 승려들이 "우리 탓이오" 하였습니다. 각종 비행을 저지른 불교계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말 많고 사건 많은 불교계에 비리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불교

계는 분명 정화되어야 했으며, 오늘날에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고한 시민을 해치는 살인 짐단에 의해 불교계가 정화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가 아니라 침탈이기 때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한국 사회에서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두 가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제발전과 사회민주화

그 어느 영역에서도 불교계는 주도적인 혹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불교계의 역할은 돋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스님들의 활동이기는 하나 극히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깨달음이지 이러한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불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노예적 수동성과 소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를 깨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교단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능동적 대응

노예적 수동성과 소극성을 버린 주체적 인간

것이나 일부 승려들의 염세주의적 행태는 하루속히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이 극복해야 할 사고방식에는 염세주의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의 차별, 심각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불교인들은 가

운데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 교단 역시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법교단 차원에서 대

정치인들이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오" 하면 그는 양심을 되찾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두 차량의 운전자들이 서로 "내 탓이오" 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심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이 말하는 "내 업보 탓이오" 하는 것은 양심의 회복과 무관합니다. 10.29 법난이라 하면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불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래도 사회 일반에서는 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불교인들의 소극적 대응 때문입니다. 10.29 법난이란 80년에 키티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사찰에 난입하여 승려들을 마구 구타하고 끌고 간 일을 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화교육까지 받았

문입니다.

이렇듯 스스로가 침탈당하고도 내 탓이오 하는 것은 결코 자기반성이 아닙니다. 내 탓이오 하는 것은 주인된 자가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자기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불교계 일각에서 10.29 법난에 대해 "우리 탓이오" 한 것은 오랜 동안 노예적으로 길들여진 탓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명동 성당에 경찰이 난입했다면 이것을 "우리 탓이오" 할 가능성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차량에 "내 탓이오"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명동 성당에서 수없이 많은 농성이 있었지만 경

한 때 서양학자들 가운데서 불교가 염세주의나 아니나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 불교를 접한 서양학자들 가운데는 무아설(無我說)이나 공사상(空思想)에 대해 도식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들이 불교는 염세주의의 철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러한 생각은内の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계에서는 불교가 염세주의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불교는 염세주의의 철학이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불교는 인생에 대해 회의적인 태

뱀의 지혜를 배웁시다

이달의 설법문안

우리는 선조들이 해마다 육십갑자로, 또는 동물로 한 해를 표시해서 생활에 활용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천지자연의 이치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전통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이 육십갑자는 열 개의 글자로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天干)과 열 두 개의 글자로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地支)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지지(地支)는 동물로 대비하여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육십갑자는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운명을 예지하는 점술에도 사용되고, 계절, 달을 표시하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쓰여 왔고, 지금도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육십은 의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생활 전반을 통하여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단기나 서기 대신에 육갑으로 표시했었고 농사의 지침으로도 삼았습니다. 그 육십갑자 중 뱀은 중요한 의미와 소중한 동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해 보통 뱀은 간교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뱀을 신성하게 보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구렁이는 '엄구렁'이라고 하여 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고, 이 구렁이가

집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경전이나 설화 가운데에는 나쁜 업을 지은 과보로 뱀의 몸을 받은 경우가 있고, 우리 육신에 대한 비유로서의 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설화입니다.

금강산 돈도암이란 암자에 수십년 동안 수도를 하여 곰 견성을 하게 될 홍도란 스님이 있었는데, 마침 병이 들어 며칠간 방에만 있다가 그날은 하도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옷을 벗어서 한 편에 놓고 누워 있었는데

나쁜 업을 지은 과보로 뱀의 몸을 받음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⑯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 의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 · 다라보살(多羅菩薩)

지난 호에서 연화부원(蓮華部院)의 중심 보살인 성관재보살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성관재보살의 위아래에 있는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과 '다라보살(多羅菩薩)'에 대해서 살펴본다.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은 인도 산스크리트로 브리구티(Bhruti)라고 한다. 비구자란 '눈썹 위의 주름'이란 뜻으로 성관자재(聖觀自在) 보살의 미간(眉間)의 주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보살은 공성(空性)을 깨닫지 못하고 무명에 헤매는 자를 공포에 떨게끔 하여 성관자재의 대비력(大悲力)에 의해 조복(調伏)시키는 공능(功能)을 지니고 있는 보살이다. 맑은 몸을 한 이 보살의 뒷에는 둥그런 광채가 감싸져 있다. 그 광채는 황(黃)·적(赤)·백색(白色)을 띠고 있는데, 황색(黃色)은 증익(增益), 적색(赤色)은 조복(調伏), 백색(白色)은 식재(息災)를 상징한다. 티벳에서는 티벳의 초대 왕이었던 손챈캄포가 네팔로부터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브리크티'인데 아미타여래의 화신(化身)으로 송상되고 있다.



비구지보살

사와타야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공포를 격퇴시키는 자여! 훔! 파쇄(破碎)토록 하소서. 사바하'라는 뜻이다.

다라보살(多羅菩薩)

다라보살은 관음보살의 눈(目)에서 나온 여신(女身)의 보살이다. 다라(多羅)는 눈동자라는 뜻으로 관자재보살의 눈이 빛나는 것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 또 다라(多羅)는 '건네다. 나루등'의 뜻이 있어 중생을 피안(彼岸)에 건네준다 하여 구도자(救度者)라고도 한다. 관자재보살의 대비삼매(大悲三昧)의 덕(德)을 주관하며, 푸른 연꽃(青蓮華)과 같이 티없는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인도나 티벳에서는 성관재보살과 함께 밀교의 대표적인 본존(本尊)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반화 되지 않은 보살이다. 이 본존을 상징하는 청연화(青蓮華)는 화병(花瓶)의 끝부분이 검(劍)과 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중생심(衆生心)의 더러움을 끊어 잘라내는 것을 상징한다.



다라보살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비생금강(悲生金剛) 또는 행원금강(行願金剛)이라 부른다. 비생금강은 자비를 일으키는 금강보살이라 뜻이고, 행원금강이라 자비행을 서원하는 보살이라 뜻이다.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삼매야행은 앞에서 말한대로 푸른 연꽃형(青蓮華)이다. 존형

비구지보살은 성관자재의 대비력(大悲力)에 공능(功能)을 지니고 있는 보살

다라보살은 푸른 연꽃(青蓮華)과 같이 티없는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정혜금강(定慧金剛)이다.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나타내는 보살이다. 삼매야행은 수주민이다. 여러 개의 엉주가 꽂다발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이며 네 개의 팔을 지니고 있고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비(四臂) 삼목(三目)의 보살존(菩薩尊)이다. 왼쪽의 첫째 손에 연화(蓮華), 둘째 손에 병(瓶), 오른쪽의 첫째 손에 수주(數珠)를 들고, 둘째 손은 여원인(與願印)을 갖고 붉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내박(內搏)을 맺고 두 개의 인지(人指)를 세우고 각각의 손가락을 끝을 붙인 형태이다. 이 보살의 진언은 '나마 사만다보다남 다래 타리니 가로다트비바베 사비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리여! 구도자여! 자비로부터 생(生)한 자여!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이 보살의 진언은 '나마 사만다보다남 사리바바야타라산니 훔

(尊形)은 청백색(青白色)으로 하얀 갈마의를 착용하고 마치 중년의 여인이 미소 짓는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에는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는 낮은 관을 쓰고 합장하여 청연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청(青)은 조복(調伏), 백(白)은 자비(慈悲)를 나타내고 있다. 인상(印相)은 내박(內搏)을 하고 두 개의 인지(人指)와 두 개의 엉지를 세우고 각각의 손가락을 끝을 붙인 형태이다. 이 보살의 진언은 '나마 사만다보다남 다래 타리니 가로다트비바베 사비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리여! 구도자여! 자비로부터 생(生)한 자여!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생활속의 밀교

불 · 법 · 승의 공경에서부터 수행은 시작된다

▶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과 그것을 배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것이 몸에 베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으로서 행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베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데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과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에 따라 그 마음이 사랑을 실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된 '나'라는 절못된 견해와 습관을 더욱 공고히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목표는 자유입니다. 이를 불교용어로 말하면 해탈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열정으로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이며 무지(無智)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이며 궁극적으로 태어남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인 니르바나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볼 수 있으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눈 깊은 산의 눈부신 정상처럼 완벽한 자유인 니르바나는 우리가 걷는 팔정도(八正道)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멀고,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하고 수많은 괴불꼬불한 길과 옆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옆길로 새지 않고 꾸준히 동요됨이 없이 걷기 위해서는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걷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도움은 세 가지로서, 그것은 부처님(Buddha)과 법(Dharma) 그리고 스승(Sangha)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의 생애와 그가 성취한 진리로서 '깨달음은 가능하며, 그러한 인간의 완성됨이 바로 이 생의 진실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상의 모범입니다. 봉사의 생과 그의 사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는 데 필요한 힘과 노력을 갖게 합니다.

▶ 법(法, 다르마)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우리 가 도움을 얻는 것은 그것들이 도덕,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명상 그리고 생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실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과거와 현재, 깨달음을 얻었거나 혹은 얻지 못하였거나 부처님께서 성취한 것을 달성코자 그들의 공통된 서약으로 함께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스승님이 도움이 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에 우리보다 선행한 그들이 그 여정의 앞길에 대하여 조언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때 다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곤경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부처님의 법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우리 각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스승은 오직 그 길의 방향만을 알려 줄 뿐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들은 후 스스로 수행하여 올바른 길을 걸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수행의 좋은 결과를 수확할지 여부는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수행은 자수법(自受法樂)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월조불공을 통해부처님, 부처님 법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수행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정시(定施)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회사하는 것을 말한다. 스승이나 교도는 매일 조식으로 염송을 정하여 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정하여 황시 회사를 해야 한다. 매일 조식으로 염송하는 것을 정송(正誦)이라 하고, 이 정송과 함께 회사하는 것을 정시(定施)라 한다.

차시(差施)는 때에 따라서 임의로 회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뜻에 따라 회사를 한다.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해서 회사한다 하여 차별회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먼 길을 떠나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회사를 하는 경우, 나쁜 일을 목격했을 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를 하는 경우이다.

정시(定施)는 곡식을 심는 데 밀거름과 같고,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은 것이다. 정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고에 즉시 넣어야 하지만 차시는 마음 속에 정한 금액을 나중에 돌아와서 넣을 수도 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돈을 다른 주머니에 넣어 표시를 해 둘 수도 있고, 회사금액을 메모지에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 놓았다가 하는 방

법도 있다.

이 정시가 자신의 신심을 굳건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 매일 실천하는 회사법이라면, 차시는 순간순간 나의 믿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는 회사법이라 할 수 있다.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언행자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해주는 실천수행법인 것이다. 〈집집자주〉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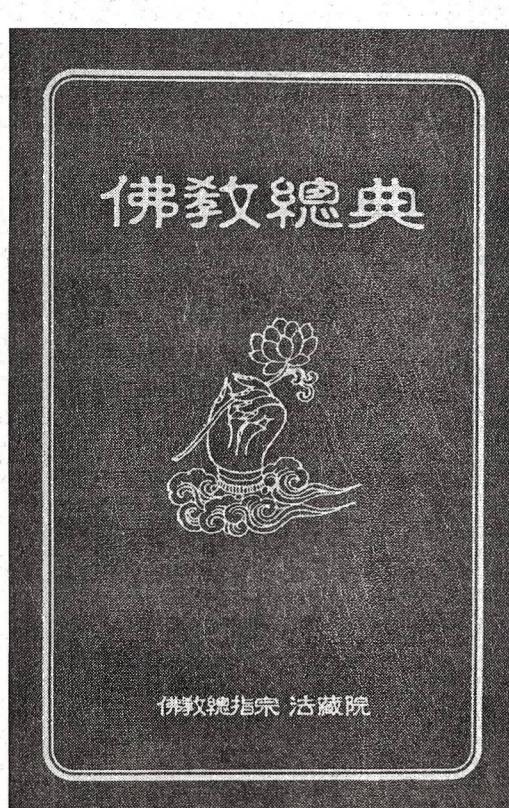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봤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애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기획연재>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꽂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종흥과 함께 조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디자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종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곧 개관될 「종조기념관」의 전시 유품 가운데 일부 원고입니다. 앞으로 원고를 계속 연재할 예정이므로 종조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종조기념관」을 미리 둘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관세음보살의 본심 ‘옴마니반메훔’의 공덕

대승장엄보왕경에 이르시되 관세음보살 본심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길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니라. 만일 이 주문을 염불불망하는 사람은 천재만액이다 소멸하느니라. 대승장엄보왕경에 설함과 같이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있는 곳마다 부처와 보살을 이루며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의 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을지며,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얻으면 탑진치 삼복에 애착함이 없을 것이요 또 이 본심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난 자도 또한 탑진치 삼복병에 둘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와 같이 이거나 지난 사람의 몸과 손으로 하는 바와 눈으로 보는 바의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위(位)를 얻어 영명 다시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고생을 받지 아니하리라. 육자영감 대명왕경에 이르시되 모든 경전은 등겨

와 같고 이 본심주(本心呪)는 백미(白米)와 같다고 하셨나니 우리들이 일심(一心)으로 수행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중생이 다 하기를 원하노라.

무량수 대각님이 설하시되 이 본심을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발생(放生) 한 번 한 공덕과 같고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五逆罪)를 면하고 날마다 백여립번을 생각하면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끊임 없이 생각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을 친근하고 놀래고 두려움이 나지 아니하며 희사(橫死)에 이르지 아니하며 좋은 일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며 의식(衣食)이 갖추어 넉넉하며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나는 곳마다 관세음보살께서 자재(自在)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니 천겁(千劫) 가운데리도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육자 본심의 공덕이 비활 데 없느니라. 백용성(白龍城) 정사가 관세음보살 본심의 공덕을 설하니 이 본심주(本心呪)의 공력을 말하지만 허공으로 입을 삼아 가지가지 공덕을 칭찬하여도 향하사(恒河沙) 미진수(微塵數) 중의 하나 만큼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해야 할 수 없고 가이 없는 많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이 관세음보살 본심 음마니반메훔을 일심으로 외우고 생각하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파의 난에서 해탈함을 얻을지며 설사 사람이 살해를 당할 때나 또 죄가 있거나 하여 만약 수갑(手甲)·차고(鉗)·황쇄(項鎖)로 그 몸을 압매더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다 해탈하는 은혜와 구원

니는 하심(下心), 반은 용맹(勇猛), 메는 목념(默念), 흡은 지혜(智慧)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며 잊지 않고 목념하면 천재만액(千災萬厄)이 소멸하느니라. 이 심인(心印)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라 만법(萬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사만리(萬事萬理)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자 심인은 백미와 같아서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죽을 목숨 한번 살려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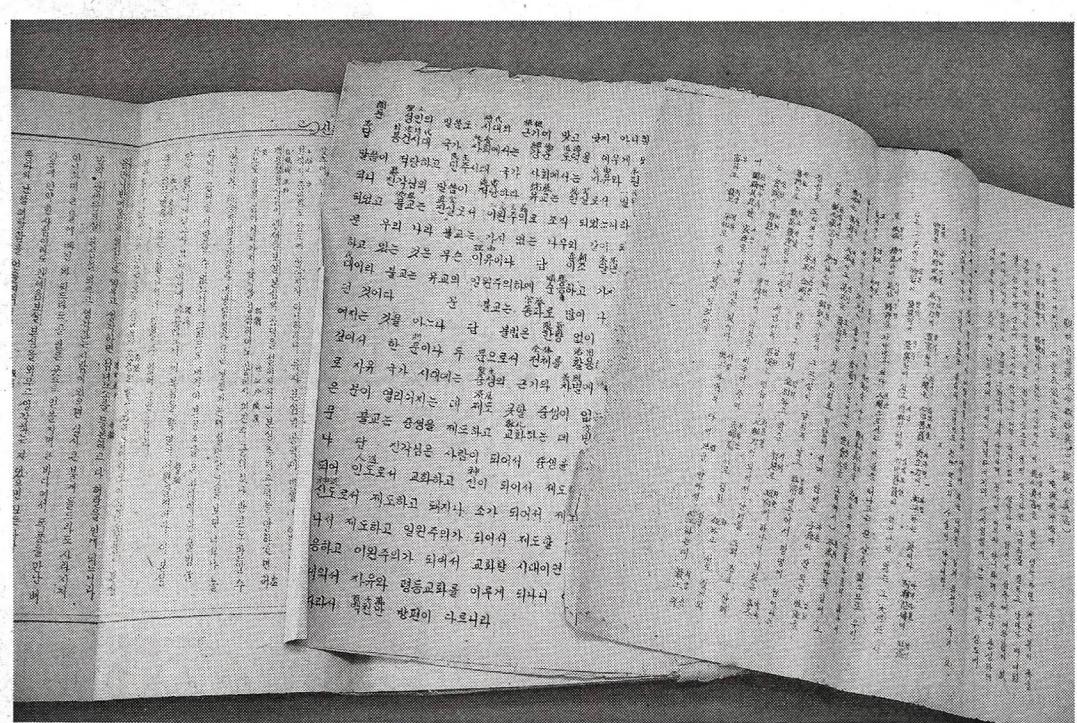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를 면하며 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벗속에 있는 벌레 등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나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 외도의 사술이 아니라.

만일 큰 불에 들지

과 구원을 얻을 것이며 도적이 와서 칼로 해코지 할 때라도 회사하고 목념하면 좋은 마음을 내며 독룡과 악마가 침노하지 못하며 악한 짐승이 물려가며 독충의 악한 기운이 흩어지며 천등치고 번개치며 우박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재앙을 받지 아니하며 황악과 난리가 일어나도 행하고 염하면 스스로 구원을 얻나니 이와 같이 공력이 큰지라 칭찬만 하여도 복을 얻을 것이나 비방하면 곧 곤란과 재앙, 우한 질병과 빙천한 자목의 생활을 하게 되느니라.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六行)은 제일 지혜(智慧), 제이 목념(默念), 제삼 용맹(勇猛), 제사 하심(下心), 제오 계행(戒行), 제육 회사(喜捨)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라. 심인불교(心印佛教)에서 실행(實行)하고 오는 것은 불경(佛經)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이 여섯 가지 실천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목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하심(下心)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眞心)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마행동을 고치고, 회사로써 담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되느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와 보살을 이루게 하고, 해탈과 구원을 얻게 하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주(本心呪)

옴마니반메훔을 송(誦)하고 염(念)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

가이 본심주를 큰 바다의 한 물방울 만큼 설하여 깨닫고자 하는 이에게 제공하노니 이 본심을 꼭 믿어 서원할지어다. 이 본심주의 미묘 변화는 하도 엄청나서 더 말할 수 없어 그만 두노라.

으면 설사 큰 물에 들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큰 물에 빠진 바 되더라도 곧 얇은 곳으로 얻을지며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자

을 얻느니라.

심인 옴마니반메훔을 송(誦)하고 염(念)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이다. 움은 회사(喜捨), 만은 계행(戒行),

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큰 물에 빠져도 자연히 바깥으로 밀려나오며 폭풍을 만나더라도 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회사하고 염송하면 다 풍파에서 벗어나며, 강도를 만나 손과 발이 뷔이더라도 해탈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치매이야기 ②

치매의 원인과 예방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의 신경세포가 위축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치매의 70% 가량은 대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고, 20-30%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뇌혈관성 치매, 10%내외의 대사성, 내분비성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혈관성 치매는 심근경색이나 뇌출증 등의 심혈관성 질환의 경우와 같이 비만

과 고혈증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를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뇌혈관성 치매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건강상식을 알고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와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10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를 걱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최

-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 추상적인 사고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 물건을 잘못 간수한다.
-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온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위축하여 제 기능을 못해 발생

지속적인 지적활동, 적당한 운동, 바티민 E 등의 황산화제가 예방

치매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자신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치매에 걸렸을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경우 정신과의사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찰을 받고

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온다
-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 성격이 변한다.
- 자발성이 감소한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증

뇌졸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갑작 상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홍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com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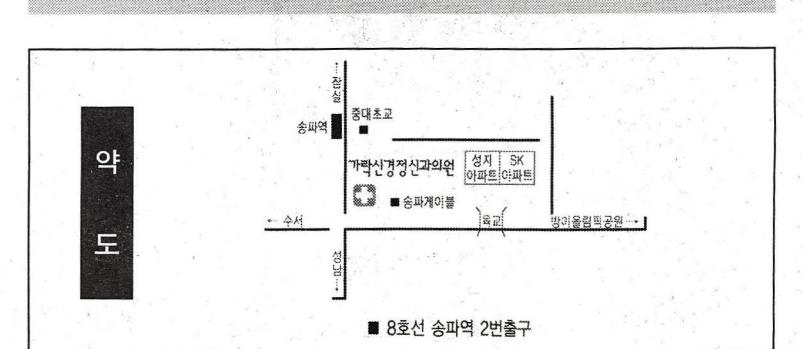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풍경소리

일주문

사비의 욕심일랑 다 버리고 들어오라
무얼 그리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가
강득의 물안개처럼 너의 짐을 풀어라

쓸데없는 미움에다 녹슬은 자존심만
네 속에 가득하구나 얼마나 무거웠더니
버려라, 다 버리고 나서 도량으로 들어서라

네 곁에 함께 서서 피안을 바라봐라
구름이 일었다가 사라진 서편하늘
노을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는가

- 고두석/시인

바리춤

별빛이 숨죽이고 석등에 내릴 때면
연화대 바라보는 영혼 담은 맑은 눈빛
끌없는 원을 그리며 잣아질 듯 몰아친다.

허망한 속세의 꿈 멀치련 굳은 화두
불거진 꾀풀 속에 도도히 흐르는 피
하얗게 태워 날리듯 온몸으로 춤추고

겹겹이 쌓인 인연 잘라낸 아픈 가슴
뜨거운 눈물 방을 꽂아처럼 멀어질 때
두동실 구름을 타고 현학처럼 너울인다.

회색빛 장삼자락 사비를 휘 덮을 때
집착의 질긴 인연 끊어놓는 금빛 바라
너울진 메이리 폭은 무상을 타이른다.

황홀한 꽃 무지개 연화 빛 그림자로
손 꽂에 다가오는듯 꿈을 꾸는 수미산
향 물은 바람결 따라 다가서는 님 모습

이마에 흐르는 땀 새벽에 별빛 되고
찬란한 아침 햇살 밀려든 맘의 평안

고운님 품에 안겨서 이승 끝에서 있다.
- 전선구/시인

송광사 가는 길

시정바람 너무 매워 큰 가람 찾는 날
나는 청포도령 신록보다 날은 다야
보리밭 둔덕에 앉아 보리파리 불다 가네.

학구를 잡아타고 주암호 굽이 돌다
지붕다리 난간 앉아 팔 다리도 펴본다
자비론 천 이백 항족 송화향에 젖으며...

약수에 목죽이며 공덕빌을 우러르다
조계산 넉넉 가슴 오지랖을 제끼다.
미소로 철옹성도 녹이는 대웅보전 부처님.

황혼길 두려워요 삶이 너무 쓰려요
모두 곁을 떠나가니 흙운이 염습해요
불타여, 이 너른 솔숲에 미소 한 자락 주소서.
- 최영균/시인

심법송

수미산 걸린 구름 어제같지 않다 하는
참말씀 듣고서야 돌아보는 중생의 삶
이승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인연으로 풀린다.

일주문 올라설 때 숨가쁜 고통처럼
태어나 늙어가고 병들어 맞는 죽음
자신의 일체계고(一切階苦)를
만생명도 지녔다.

허무를 극복하는 깊은 산 풍경소리
겸손한 합장마음 만물속에 조화롭다.
일생을 제법무아(諸法無我)로
나누면서 살라하네.

- 김광수/시인
(자료제공 : 불교문예)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불교 ~반야심경면 제 33화~

글.그림/정수일

삼세판인데
몇 번 기회를
더 주세요.나 원...
저승사자 취직한
이래 이런 일
처음이네.우리도
이런 일
처음이라구요.

이달의 명상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

자자란 수의(隨意)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엔
우인거가 끌나는 마지막 포살일에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율장』『대품』에는 자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인거가 끌나는 마지막 날 해가 넘어가고 보름 달이 휘영청 밝아 오면 비구들은 모두 마당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면 한 스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여, 들으십시오. 오늘은 자자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 대중들의 의의가 없다면 교단은 자자를 베풀려 합니다.”

이렇게 의식이 시작되면 그 스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모든 비구가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고는 동료 비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하노니 대덕들이 나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의심을 지니신 분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해 주십시오, 죄를 알면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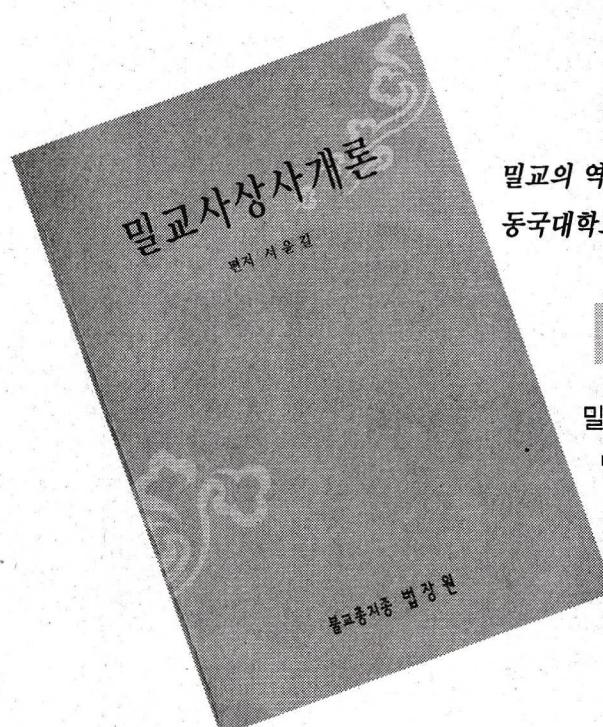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번씩 청하여 모든 차례가 끝나면 자자의 의식도 끝나는 것이었으니

부처님을 선두로 신입 비구에게까지 모두 마친 것 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자란 자진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청하는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참된 공동체 생활속에서 살아가는 비구들은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어 반성하고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허물은 도반의 지적을 받아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도반끼리 서로 탁마해 가는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나보다 더 잘못이 많더라’ 하고 맞대응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 행동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항상 자심참회를 통해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진언행자들은 진언업승을 통해 매일 참회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정한 수행으로 담금질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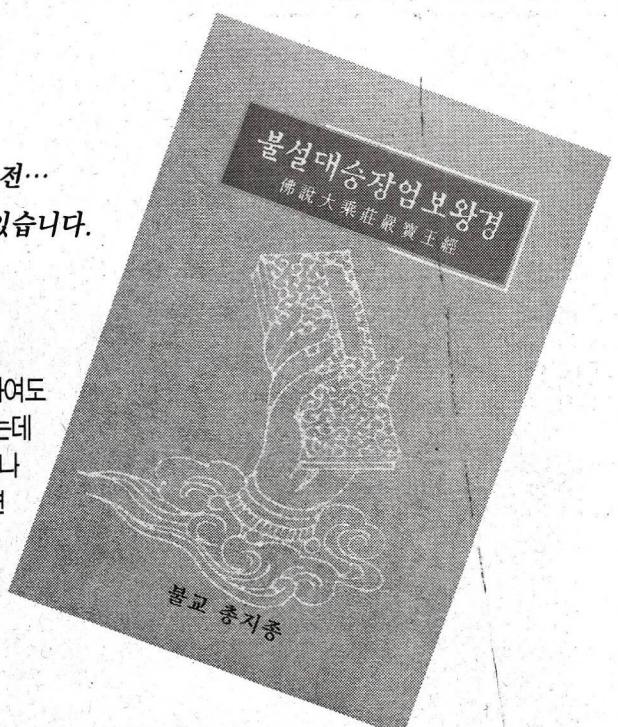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 대승장엄 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매홍』의 유래와 공력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배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인니.”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세계속의 불교

Buddhism Across the Himalayas (하imal리아 지역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코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있는 다른 지역들이 기원전에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티벳과 몽고는 몇 세기 후에도 불교의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티벳과 몽고는 인도와 중국 상인과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주요한 여정으로 이었고, 둘째는 유목민과 호전적인 성향인 티벳과 몽고인은 불교의 진리와 높은 수준의 문화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Introduction of Buddhism to Tibet(티벳의 불교소개)

그러나 7세기에 많은 부족단위로 분리되었던 티벳인들은 스롱초산감포에 의해 거대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티벳을 통일로 이끈 그는 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중국과 네팔의 공주와 결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중국과 네팔의 공주는 오래전부터 불교신자였으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스롱초산감포는 대표단을 중국과 인도에 보내 불교를 연구하고 불교서적을 가져오게 했다. 이러한 대표단은 왕의 신앙심과 불교국가를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불교서적을 티벳어로 번역하였으며, 시민들이 불교수행을 하도록 격려하였고, 티벳에 많은 사원을 신축하도록 하였다. 그는 티벳에서 최초의 불교 후원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통치기간동안에 티벳 승려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티벳인들은 불교를 외국 종교로 간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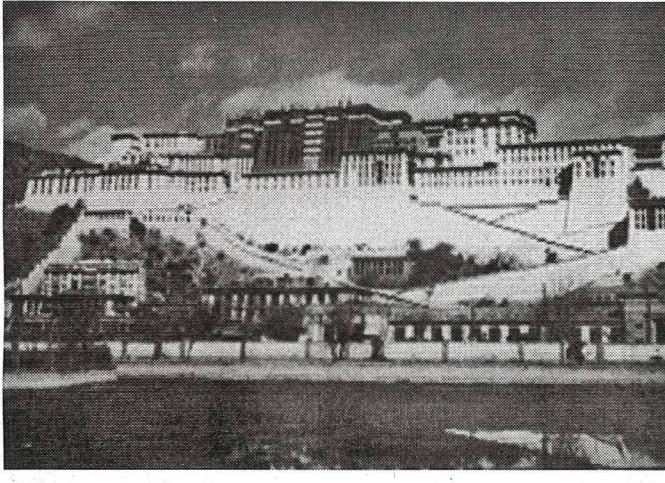
The Growth of Indian Buddhism Influence in Tibet (티벳에서의 인도불교의 영향과 성장)

8세기에 통치자들중의 한 사람은 스롱초산감포의 업적을 받아들여 불교의 교리를 발전시켰다. 그는 유명한 불교학자인 산타락시타를 티벳에 초대하였다. 산타락시타는 인도에 있는 나란다 종교대학의 수도원장이었다. 그는 티벳의 수도리사를 여행하였고 몇 개월동안 불교의 교리를 가르쳤다.

그러나 티벳 궁전에는 불교를 반대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왕에게 산타락시타를 추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왕은 산타락시타와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잠시동안 네팔에 머물도록 하였다. 산타락시타는 왕에게 유명한 명상가인 패드마삼하비를 인도에서 초청하도록 권유하였다. 티벳의 왕에 의해 초청받아 티벳에서 활동한 패드마삼하비는 불교를 반대한 인물들을 교화시켜 산타락시타는 다시 티벳로 돌아왔다.

패드마삼하비와 산타락시타는 티벳에 대승불교와 밀교의 교리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학자이며 명상가로 명성이 대단하였다.

또한 티벳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어 패드마삼하비는 오랫동안 티벳에 머물지 않았지만 티벳인들은 그가 아니었으면 티벳에 불교



를 전파하지 못했을 지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성한 성인으로 추앙하였다. 산타락시타는 티벳에서 불교를 가르치며 죽음을 맞이하였다.

두 성인이 불교를 전파하는 동안 많은 사원이 건축되었으며 처음으로 티벳인들중에서 스님이 탄생되었다. 티벳 스님들은 뛰어난 명상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그 후 50년 동안 많은 불교 서적들이 번역되었으며, 초기의 번역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불교서적을 번역할 항목들이 항상 준비되었으며 인도와 티벳 승려들은 공동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완성하였다. 지금까지 인도는 티벳인들에게 불교문화의 성지순례지가 되고 있다.

The Later Transmition of Buddhism Teaching from India (인도로부터 불교의 후기전파)

9세기에 티벳에서는 불교에 암백이 있었다. 많은 티벳인들은 인도로부터 전래된 불교의 불교교리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 많은 티벳인들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다시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의 학자들을 초청하였다.

11세기에는 티벳과 인도사이에 관계를 증진

시켰고, 불교활동을 활성화시켰다. 티벳에서 불교의 부활에 공헌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도 학자인 아티사와 위대한 티벳 명상가이며 시인인

밀라레파는 그 유명세가 대단하다.

아티사는 인도에서 왔으며, 인도 종교대학의 수도원장이 되기전에는 남동아시아의 유명한 불교센터 중의 하나인 스릴자야에서 10년동안 보냈다. 그는 11세기 후반에 티벳에 왔고, 그후 13년동안 생활하다가 티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또한 티벳 불교발전에 대한 공헌을 하였고, 그의 불교 교리의 많은 부분은 티벳에서 다양한 불교전통을 확립하였다.

11세기에 살았으며 풍족한 가족 배경을 가진 밀라레파는 인도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명한 번역가인 선생님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는 곧 모든 사물의 현상을 통찰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는 위대한 명상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명상적인 경험을 놀라운 아름다움과 심오한 지혜를 내포하고 있는 음악으로 현상화시켰다.

그후 몇 세기동안 많은 인도의 유명한 성인들이 티벳를 방문하고, 많은 티벳인들은 인도에 있는 불교교리를 공부하기 위해 힘든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 여행하였다.

그들은 인도의 불교철학뿐만 아니라 음악, 의학, 논리학, 예술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티벳 사회는 원초적인 국가에서 배움과 지혜의 나라로 변화되었다.

인도에는 있는 불교문화의 모든 서적들은 티벳 어로 번역되었고 수많은 수도원이 건축되었고 티벳불교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13세기 불교가 인도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동안 티벳은 불교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The Later Development of Tibet Buddhism (티벳 불교의 후기발전)

14세기에 티벳 북동에서 태어나고, 사원의 행자교육체계를 세우고, 많은 서적을 편찬한 것

으로 유명한 풍가파는 위대한 스님이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몇 년 동안에 교세가 확장되어 그 교단은 티벳에서 점차적으로 큰 교세로써 위상을 확립하였다.

14세기 이후 티벳에서 불교는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성장하고 있다. 학식이 풍부한 학자들이 경전을 가르치고 비평서를 출간하고 불



교에 대한 근본교리에 대한 서적을 집필하였다. 스님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쉬지 않고 신비한 명상의 체험을 달성하였다.

20세기 중반에 티벳는 중국의 통치권에 편입되어 불교는 암박을 받아 많은 티벳인들은 인도와 서양으로 이동하여 불교를 보존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티벳 피난민들은

티벳 불교를 전파하였다. 오늘날 세계도처에는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티벳불교 센터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종교화 정책에 의해 티벳에서는 불교의 활동이 허락되어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출처 : 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to-himalayas.htm 번역 김용주 / 총지총보〉

정보 다이제스트

여성불자들 불교입문시기는 30대

여성불자들은 대부분 30대에 불교에 입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행과 사회봉사를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았으며, 특히 40대 여성불자들은 사회봉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7월 28일 '여성불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국 여성불자 6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불자들의 신행 경력을 묻는 설문에서 30대의 경우 5년이하하고 답한 응답자가 61.1%였다.

40대는 10년이하의 비율이 68.8%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불자들이 30대에 여성불자 중 전업주부는 20.5%에 불과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61.0%에 달했다. 여성불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는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6.5%가 수행정진을 꼽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회봉사 분야다. 22.3%의 여성불자들이 답해 불교학습이라고 답한 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50대 불자들은 수행정진(32.5%)을 첫째로 꼽은데 비해, 40대 불자는 사회봉사(26.5%)를 가장 하고 싶다고 답했다. 30대는 취

업준비와 현복, 취미에 각각 18.9%로 답해 가장 높게 조사돼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했다. 불교신앙이 불행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여성불자가 69.4%에 달했다. 또 여성불자들은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7.6%가 높다고 답해 낮다고 한 10.0%보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보통이라고 답한 여성불자들도 42.4%에 이르렀다.

이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원장은 "여성불자들이 30대에 입문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입문자에 대한 체계적인 포교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직장과 육아문제로 신행활동에 장애를 받으므로 사찰 안에 탁아시설을 설치하고 저녁시간에 법회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세계 최대불상' 세운다

인도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불상이 제작된다. 지난 14일 영국 BBC인터넷판에서 보도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일본의 한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높이 150m의 청동불상을 부처님이 열반한 쿠시나가르 마을에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왕조 8세기에 세워둔 불상보다 2배가 넘는 높이다. 이 불상은 57억년 뒤에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구원불인 미륵불의 좌상으로 축조될 계획이다.

주 관계자는 세계최대규모가 될 이 불상은 내부에 17층짜리

사찰과 함께 거대한 법당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불상이 들어설 쿠시나가르 마을은 부처가 열반한 당시에는 북인도의 부족국인 말라카국의 도읍지였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는 이 불상보다 더 높은 '휴스턴의 정신' 이란 이름의 조각상 건설을 현재 추진중이다.

최저생계비 차등지급

이르면 내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은 최저 생계비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인에서 4인까지 가구 규모별로 책정. 지급되던 최저생계비를 장애인, 편부모 등 가구 특성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과 노인, 편부모가 정에 대한 생계비 실태조사를 벌여 적정한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방침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던 최저생계비 조사를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8,000원, 2인가구 609,842원, 3인가구 838,797원, 4인가구 1,055,090원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이 실시한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가 캐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있는 가구의 경우 비례적인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가구 등의 생활비가 일반인보다 많이 필요할 경우 이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69% "희망없이 산다."

조선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응답이 69.9%에 달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28.7%였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불황(36.2%), 정치불안(36.1%)'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83.2%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으로는 '대통령(41.7%), 여당(21.5%)'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야당(11.8%), 및 모든 정치인(10%)등의 순이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다수인 88.3%가 '불만'이라고 답해 나라 경제사정에 대한 불안, 불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경제성장(68.5%)을 꼽은 국민이 다수였다.

'가장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1.9%가 '불만'이라고 답했고, '노후의 생계유지'에 대해서도 62.1%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는 국민은 35.5%로 한국갤럽 95년 조사의 13.9%, 2001년 조사의 22.5%, 2003년 조사의 31.2%로 비교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사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민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낚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기죽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현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향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사립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조)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의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응자는 후원장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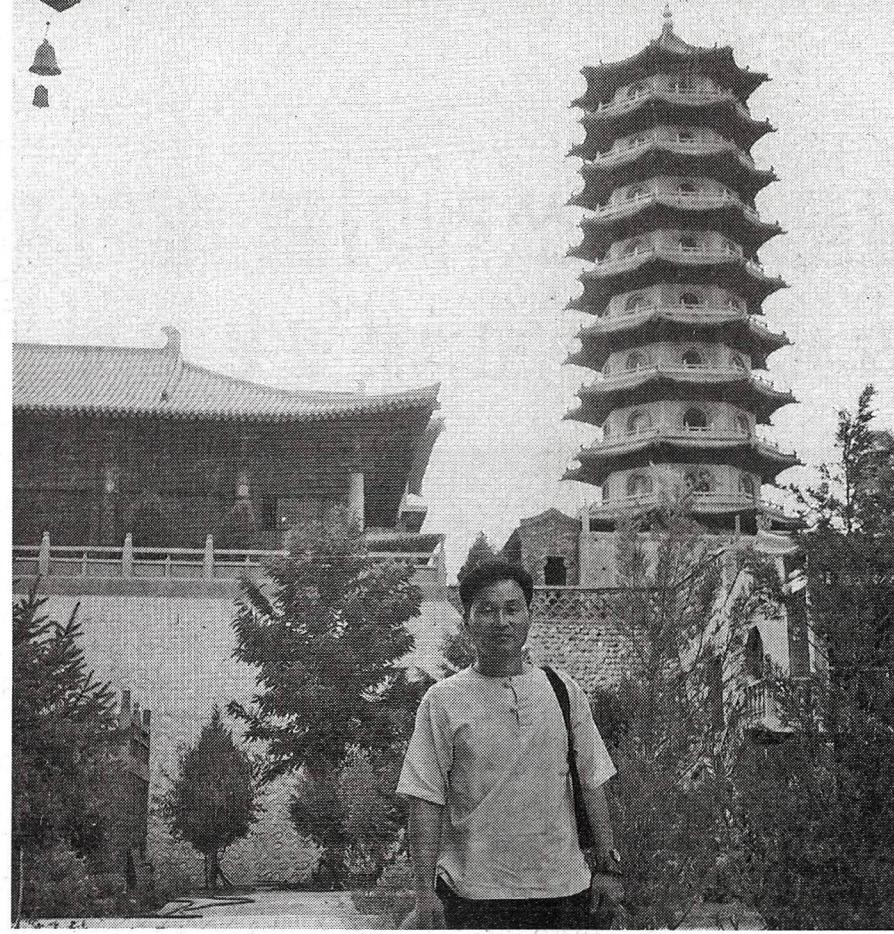
8면에 이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 장경들이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 와불전 정문의 양쪽에는 벽돌 조각의 정교한 불화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기원연법(祇園演法)'으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담았고, 하나는 서방성경(西方聖境)이라고 하여 아미타 삼존불을 묘사한 것이다. 그 밖에도 와불전 안에는 십팔나한상도 있고 《서유기》가 책으로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전설에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다. 유명한 저팔계의 고향이 장액 교외의 고로장(高老莊)이란 곳인데 원래는 무척 부자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손오공에게 패하여 현장스님을 따라나서게 되었고 도중에 내내 고향의 고씨 쳐녀를 잊지 못해 이 곳 고로장에 돌아오고 싶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곤 했다는 것이다. 와불전에 그려진 그림 속의 저팔계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현장스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이 고장 출신인 저팔계가 고향사람의 그림에서는 덕을 보았기 때문이라 한다. 와불전 부처님 옆 반상의 장엄한 상호와 아주 장엄한 상호의 보살상 등 벽화가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일부 남아있었는데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장액은 변방에 있는 도시지만 상당히 중국적인 분위기를 지닌 도시인데 좀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대불사만 보고 지나왔다. 수 나라 때 세워졌다는 장액의 그 유명한 만수사(萬壽寺) 목탑과 동진 때의 마사재(馬踏寺) 석굴 등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인연이 있으면 또 와 볼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가옥관을 향해 떠났다. 장액에서 가옥관을 향해 가는 도중에도 군데군데 만리장성의 흔적이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끌이 없는 듯 끊어지듯이 이어졌다. 잊힐듯하면 눈에 띄이는 이 곳의 장성은 돌로 된 것이 아니라 흙벽돌로 쌓았는데 세월이 워낙 오래다 보니 사막지대의 건조한 곳인데도 담벼락이 허물어졌다. 북경 근처에서 본 들판을 쓸은 만리장성과는 판이하게 허술한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성벽을 쌓으려 했다니 정말 중국인다운 발상이다. 더구나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가려고 해도 언제 걸치 모르는데 그 긴 거리를 성을 쌓으려 했으니 여기에 동원된 백성들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데 오지 바깥의 외적을 막으려고 몸부림친 어리석은 독재자들의 흔적 같아서 경탄과 함께 쓸쓸한 비애감을 느낀다. 역대 왕조는 거의가 다 스스로의 부폐와 무능으로 무너진 것이지 외적의 침입은 그저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사막의 요새 가옥관

가옥관은 만리장성이 끝나는 서쪽의 마지막 관문



보당사 대탑과 대불보전

곳 가옥관에서 절정을 이루고는 꼬리를 터가 넘는다는데 먹을 것만 있으면 이곳에 옹크리고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리나 여비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사람들은 오기가 좀체 어려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먼 곳까지도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중국 인구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가옥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보름달을 감상하고 싶었는데 성수기라 숙소 예약을 하지 못해 주전(酒泉)으로 돌아와서 자게 되었다.

와서 산다고 한들 사막 한 가운데에서 생활 용수를 어떻게 감당해 낼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못내 궁금하였다.

저녁은 법당사(法幢寺)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오래된 절은 아니고 1995년부터 짓기 시작한 모양인데 사막의 먼지가 많이 날아와서 건물을 뒤덮다 보니 언뜻 보면 매우 오래된 절처럼 보였다. 아직도 계속하여 불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높이 40미터의 팔각불탑은 얼마 전에 완공되었고 길이 36미터의 동와불은 지금 조성 중이라고 한다. 이왕이면 서 있는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듯한데 왜 와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먼지와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서 불상을 실내에 모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불상을 크게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 좌불은 천정 높이가 부담이 되어서 한계가 있으니 와불을 모시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스님께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는데 법당사 자체가 가옥관에 오는 관광객의 발길을 주천으로 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되는 절인 만큼 뭔가 특색을 지니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불탑과 불상을 조성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완공된 후의 조감도를 보니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을 것 같았다. 어쨌거나 이런 대규모의 불사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이 불교와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아제아제바라아제

남을 이해한다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한다. 상대의 관심여부는 별반 신경 쓰이지 않는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해야 이야기는 끝이 나는 듯 했다.

처음에 나는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괴로웠다. 그래서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유도했다.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 최소한의 응대로 이야기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속으로는 '쓸데없는 것에 저렇게 시간을 소비하다니...' 하며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쉼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 문득 '외롭구나! 외로워서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생겨났다. '그래, 조금 더 잘 들어주자....'

얼마 전 나는 미안미의 우조디카 스님의 책을 두어권 읽었다. 스님은 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는 것, 즉 늘상 변화하는 마음을 잘 바라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신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내달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통찰력으로 자기를 보라

나는 그 때 내가 그저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잠시 마음작용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내 속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실, 나는 요즘 남편과 사이가 더욱 좋아진 것 이 이런 나의 '마음바라보기'에 대한 작은 생각과 남편의 수행 덕분이라고 여긴다. 남편은 자신을 바라보는 명상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욱 맑아지고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의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자신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열린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어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하기에 외부에서 사랑과 이해를 갈구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일이야 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첫 시작이 아닐까?

물론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다. 몇 겹인지 기름조차 되지 않는 가슴속의 마음을 기울여서 예리하게 관

찰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조금이라도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마음 기울여서 대상을 지켜보는 싸띠(念) 수행은 단지 일상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차원에서부터 존재의 본질을 직관하는 차원까지 그 쓰임이 방대하다. 그리고 사실상 불교수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단 싸띠가 잘 되어야 깊은 집중에 들어갈 수 있고, 싸띠가 잘 되어야 높은 통찰지혜를 얻어 번뇌를 끊고 니르바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열반이 아니더라도 고난의 질곡에 빠져있는 우리 실존의 현주소를 살펴서 일상의 고통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만 있다면 싸띠수행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흔돈과 권태를 피해 끊임없이 밖으로 내 달리는 마음이라는 놈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타인과의 친정한 교감이란 힘든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내달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들여다보면 마음은 순간 방향을

잃고 주춤거린다. 그리고는 수많은 마음작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통찰력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미약하나마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마음은 스스로 겸손해진다. 나 자신을 비추어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그 순간 무거운 번뇌의 질량을 조금 덜어내고 그 만큼 더 가벼워진다. 그것은 강요된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작용으로 일으키는 선의 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니르바나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과 감정으로 얼버무린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는 각자를 분리시키는 애고의 두터운 성벽이 엄존하고 그 성벽들 사이에는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 힘든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겹푸른 강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절망이 앞선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온 이후로 자아의식이라는 성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을까? 저 강물을 건너 다른 성문을 열고 들어가 진실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을까? 만약 누군가 자신의 내적 체험 속에서 애고의 성벽을 허물었다면 그는 이미 중생이 아니라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일 것이다.

〈김선미/인드라망생명공동체 총무국장〉

교계소식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정토회 백일간 ‘빙그릇 운동 전개’



에서, 14일은 부산 롯데 백화점 앞에서 부산지역 '빙그릇운동' 음식 남기지 않기 10만인 서약캠페인'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나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고 환경기금 1천원씩을 기부하고 거리캠페인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태고종 17세종정 혜초대종사 추대법회

“새불교 구현에 가일층 정진”

태고종은 지난 6일 서울 신촌 병원에서 '제17세 종정 혜초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추대법회에는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태고종 원로이장 일우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과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정사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역대종정 및 조사스님 달례를 시작으로 종사이운, 명종, 삼귀의 상축, 악력소개, 전수품봉정, 화환증정,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혜초스님은 법어에서 "태고의 맑은 바람이 오타악세에 드날리니 만고의 부처님 광명이 길이 멀하지 않으리라"는 계승을 읊고 "태고종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서로 화합과 이해”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영결·다비식

선학원 전 이사장 남산당 정일스님 영결식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오전 법주사에서 사부대중 1천5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삼귀의, 창흔, 촉어, 행장소개, 현화분향, 조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서 법주사 회주 혜정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정일스님은 법주사 문종의 사표로서 후회를 이끈 큰 승이었으며,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가림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으로 천년도량을 일신하였고, 자비와 보살행으로 문도를 화합승가로 만들어 주신 공덕을 사부대중은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학원 이사장 도형스님은 "스님은 원적에 드실 때까지 직지일념으로 불조혜명을 전승한 활안종사였으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마음을 열고 달을 줄 이는 민덕보살"이라고 말했다.

정일스님은 1956년 조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7년 사미계를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0~1969년 망월사, 범어사, 용화사, 통도사 등에서 안거성 만했으며, 1970년 백련사 주지, 1974년 보광사 조지, 1998년 선학원 이사, 1992년 법주사 주지, 1993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

한다.

정일스님은 입직직전 상좌에게 "내가 오늘 꼭 갈 것 같다."며 "개는 개소리를 하고 소는 소소리를 한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스님답게 살며 화합해 서로를 이해하고 잘 살기 바란다."는 유지를 남겼다.

혜초스님은 법어에서 "태고의 맑은 바람이 오타악세에 드날리니 만고의 부처님 광명이 길이 멀하지 않으리라"는 계승을 읊고 "태고종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 금상수상

제6회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가 제6회 전국 중고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는 모범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중고생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푸르덴셜생명과 한국 중등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이 대회는 현재까지 6만 8천여명의 중고생들이 응모하여 1만 6천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해중학교 풍물패는 1998년 특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광안리 해변과 사직 주경기장에서 개막행사의 하나로 길놀음공연을 펼쳤다.

이후 각 학교와 사회단체의 행사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여 받은 출연료와 간식비를 푸짐히 모아 저

축을 하여 2003년부터 각종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봉방과 함께 공연봉사를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03년 11월 동래충렬재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였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재대학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등에서 안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종사는 일기5년 동안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며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지종종 훈련과 후학의 수행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 금상수상

제6회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광안리 해변과 사직 주경기장에서 개막행사의 하나로 길놀음공연을 펼쳤다.

이후 각 학교와 사회단체의 행사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여 받은 출연료와 간식비를 푸짐히 모아 저

축을 하여 2003년부터 각종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봉방과 함께 공연봉사를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03년 11월 동래충렬재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였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재대학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등에서 안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종사는 일기5년 동안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며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지종종 훈련과 후학의 수행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 금상수상

제6회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광안리 해변과 사직 주경기장에서 개막행사의 하나로 길놀음공연을 펼쳤다.

이후 각 학교와 사회단체의 행사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여 받은 출연료와 간식비를 푸짐히 모아 저

축을 하여 2003년부터 각종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봉방과 함께 공연봉사를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03년 11월 동래충렬재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였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재대학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등에서 안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종사는 일기5년 동안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며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지종종 훈련과 후학의 수행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 금상수상

제6회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광안리 해변과 사직 주경기장에서 개막행사의 하나로 길놀음공연을 펼쳤다.

이후 각 학교와 사회단체의 행사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여 받은 출연료와 간식비를 푸짐히 모아 저

축을 하여 2003년부터 각종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봉방과 함께 공연봉사를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03년 11월 동래충렬재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였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재대학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등에서 안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종사는 일기5년 동안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이며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지종종 훈련과 후학의 수행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 금상수상

제6회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광안리 해변과 사직 주경기장에서 개막행사의 하나로 길놀음공연을 펼쳤다.

이후 각 학교와 사회단체의 행사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여 받은 출연료와 간식비를 푸짐히 모아 저

축을 하여 2003년부터 각종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봉방과 함께 공연봉사를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03년 11월 동래충렬재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였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재대학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등에서 안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종사는 일기5년 동안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주식하면서 윤원설치를 비롯해 총

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

제1회 달마마라톤 대회 및 행복문화축제

달리며 화합과 나눔의 상생의 길



제 1회 달마마라톤 및 행복문화축제가 지난 12일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행복문화축제로 나눔과 화합을 다지자는 목적으로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와 불교텔레비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나눔과 회향의 문화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축제마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

된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10살부터 7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 단체별 1천여명의 불자와 서울 시민들이 참가하여 하프코스, 10km, 5km 코스로 나누어 달렸다.

이날 마라톤 하프코스 남자부문에서는 1시간 20분 50초의 기록을 세운 이지원씨가, 여자부문에서는 1시간 30분 33초의 기록을 낸 류승화씨가, 10km 남자부문에서는 문희철(35분 26초), 여자부문에서는 김유미(40분 27초)씨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일이었다.

자신과 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이 본의 아니게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분은 단체의 행정수반에서 물려난 이후에도 그 당시 계약처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완공하든지 결정하라고 하여

않으려 한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단체에 중요한 부문일 때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원만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단체에서 물려났을 때 추진되었던 일을 중단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퇴임 후에도 관심과 정열로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는 것은 잔잔한 감동을 주며,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김영란/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며칠 전 한 단체의 행정수반으로써 근무하다가 퇴임한 후 5년이나 지났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의 완공을 위해 사업 시행자를 찾아다니며 결국에 중단된 사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 분은 재임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중단된 일이 발생하여 단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단체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약자 상대방은 사업의 추진금액을 인수하고 계약을 이행

끌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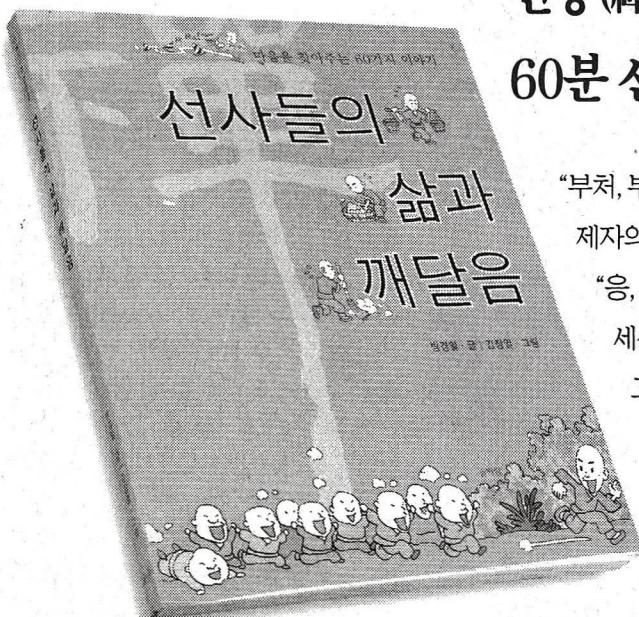
자신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두려워 남의 일에 간섭하려 하지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응, 그거 ‘마른 뚱 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만물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뚱 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 머리말 중에서 -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 미움시리즈 1권과 함께 구입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



설법연구원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 전송 (02)722-8760 | 메일 sulpub@hananet.net

신행체험 ⑯

열심히 닦아 부처님, 중생은혜 갚아야



신 인 탁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 처음 총지총에 입교하게 된 계기?

처음 총지총에 입교하게 된 것은 진언종에서 7년동안 수행하고 있다가 경제적 해탈을 바라는 마음에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7년 전 정각사에서 불공하면 경제적 해탈과 더불어 가정해탈을 이를 수 있다는 소문에 의해 정각원 스승님을 뵤었습니다. 정각원 스승님께서는 “왜 여기에 찾아 왔는가?” 하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경제해탈을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정각

원 스승님께서는 “그럼 한 번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총지총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하다보니 모든 것은 나의 행동과 인에 의해 달려 있는데 주위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 대한 자심참회를 통해 경제적 해탈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보살님의 가족사항과 하시는 일?

현재 각자님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1남 3녀의 아이들도 모두 결혼하여 각자 성실하게 신양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양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각자님께서는 제가 절에서 불공할 때는 불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월초불공 때가 되면 매일 전가족이 1시간씩 염송하고, 절량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 진리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 정각사에서 신행생활하시면서 얻은 공덕이 있다면?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너무 커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해탈과 더불어 가정해탈을 이루어 부처님의 은혜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모든 소인이 성취되고 신통한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경산에 있는 각자님의 공장에 우물이 없어서 먼 곳에서 호수를 연결하여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님은 우물을 파기 위해 업자에게 위탁하여 우물을 파도록 하여 5곳을 파보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업자들은 우물파는 것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각자님과 정각사께서 불공을 한 번 해보아라고 하여 1시간을 정해놓고 정진을 하였습니다. 55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우물이 있는 장소가 보이더니 물이 평평 솟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업자들에게 그 장소에 우물을 파도록 하여 우물을 팠더니 정진중에 눈에 보였던 모습이 재현되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진을 해보고 일을 처리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부산경남교구 지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려운 점은?

부산경남교구 지회는 부산경남교구 각 사원의 신정회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지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서로간에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는 종단의 대소사 행사에 후원하고 참가하며,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로서의 행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회의 회장직을 맡아 지회를 이끌어 오면서 저는 수행적, 생활적인 면에서 회원님들에게 많은 것을 받기만 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 보살님께서는 항상 웃는 얼굴과 자비행을 실천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근원은?

사람은 살다보면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린 늄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리저리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항상 마음속에 행복의 부처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만나는 한 사람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어떻게 웃는 얼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진리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각사는 총지총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자부심과 더불어 긍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보살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동기는?

정각사는 총지총에서 교도수가 제일 많고, 많은 스승님과 보살들이 배출되는 곳이며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보살들이 경제적, 가정적 해탈을 이루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지총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바로 옆에 자리잡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밀법의 최대도량이요, 소원성취도량이기 때문에 정각사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신행생활하시면서 미음속에 간직한 경구나 철학이 있으시면?

저는 “열심히 닦아서 부처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갚아라.”라는 경구를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닦는다.’는 것은 나태함이 없는 용맹정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인욕하며 정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진을 통해 마음자리를 살피고, 부처님의 공덕도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답은 충분히 받습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할 때 소원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한 숟가락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농사꾼들의 도움과 있는 옷도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각사는 많은 보살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은 각자 생활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생각에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미움으로 간직하지 말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합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정각사는 훌륭한 스승님과 간부보살님들이 서로 화합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직면하였을 때는 마음에 흥분이나 동요를 하지 않고 차분히 불공하면서 들튟는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죽이고, 부처님의 법대로 지킬 도리를 지키면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 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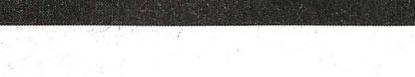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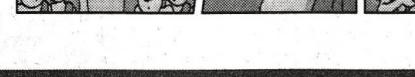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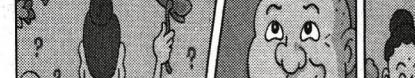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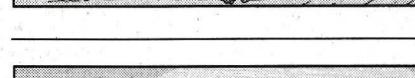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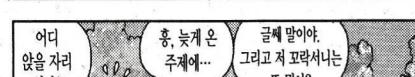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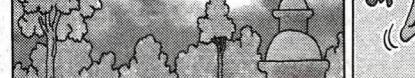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종단과 부산경남교구 지회에 바라는 점은?

총지총은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사원이 존재하고 교도들도 종단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각 보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납골당이 부산경남지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 지회장으로서 아니 한 보살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산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살들은 총지총 청종과 더불어 오로지 음마니반메훔만을 믿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총지총의 사원에서 총지총이 만들어놓은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죽은 가까운 한 보살은 가족들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이 존재하지만 총지총의 납골당에 안치되고 싶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을 모아두었다가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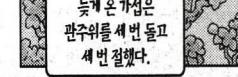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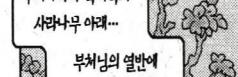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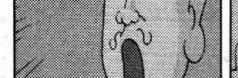
이 도리를 아느냐?

비사리 실 복서족의 대차단



개념은 내게로 오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가삼밀 수행의 최대 밀법도량



총지종에서 가장 큰 밀법도량이요, 모든 진언 행자의 뿌리요,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영험한 가정해탈, 소원성취 밀법도량!

부산 명륜동의 산꼭대기에 자리잡아 모든 중생들을 호령하듯 근엄한 자태로 매일 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수행하는 곳! 유가삼밀 수행으로 죽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고, 훈들리는 마음자리를 바로잡아 중생해탈을 증득한 신비스런 도량으로 부산지역에서 소문난 정각사를 찾아가 본다.

정각사의 연혁

정각사는 총기1년 동래구 명륜동에 정각원 스승님의 자택을 무상받아 설단불사를 한 후 부산선교



부로 개설하여 정각원 스승님을 초대 주교로 임명하였다. 그 후 총기4년에는 총지사원당으로 개칭하고, 총기6년에는 정각사로 개칭, 사원을 신축하여 현공불사를 봉행했다. 총기 24년에는 정각사 바로 옆에 지하2층 지상4층의 부속전당을 신축하여 어린이집과 사택으로 활용하였다.

정각사는 초대 정각원 전수님이 교화한 후 교도수가 인신인해를 이루어 수행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부산지역에 몇 개의 분원 형태 사원을 개설하였다. 또한 총지종의 많은 스승님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수많은 정사, 전수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였으며 현재에도 경원정사, 정법수 전수를 포함하여 6명의 스승님들이 교화의 일선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다.

초발심으로 용맹정진

부초심자인(夫初心之人)의 지아비 '부(夫)'는, '무릇, 대자' 등으로 번역되는 글자로, 글을 시작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곧 부창부수(夫唱婦隨)라. 지아비가 부르면 아내가 따르고 아이들이 저절로 따르는 것처럼, 먼저 '부(夫)' 자를 두어 뒤의 글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初心)'은 초발심(初發心)의 줄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발심(發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발심은 발무상보리심의 줄인 말입니다. 부처님이 증득하였던 가장 높고 거룩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맡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발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처음 일으킨 사람을 일컬어 초발심자 또는 초발심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초발심, 발보리심, 발무상보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 어떠한 경우에도 동요되지 않는 무상보리심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인생살이....

인간이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게 되는 좋지 않은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아보면 '신삼(身三), 구사(口四), 의삼

야운스님은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눈 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한생이 얼마나 되기에도 뒤지 않고 계으르만 부릴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거나, 금생에 도를 닦지 않고 혀되어 죽어버리면 만겁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라."

천년에 한번 바다 위로 나와 바람을 쐬는 눈먼 거북이, 그렇지만 눈이 멀어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걸리는 것이 없으면 도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린 나무토막 하나가 파도를 타고 떠내려와서 거북의 몸에 걸리게 되면, 거북은 얼마동안 휴식을 취한 것이 광우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의 법까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도를 닦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를 닦지 못하고 혀되



(意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몸으로는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짓고, 입으로는 거짓말, 추악한 말, 이간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내뱉으며, 생각으로는 탐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나쁜 업은 모두가 자기애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에 대한 사랑에 사무쳐 나에게 맞으면 탐심을 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며, 나에게 사로잡히다 보니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여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들고 미는 것입니다. 그리

하여 수만 가지 번뇌와 나쁜 말, 심지어는 나쁜 행동까지 거칠지 없이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결국 갖가지 번뇌에 휘말려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며 짜증을 내면서 살게 되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번

뇌를 좋아하고 번뇌 속에 살기를 바라는 인간은 없습니다. 번뇌가 싫지만 번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삶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인생은 꿈속에서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인생 이거늘 자기에 대한 사랑과 혼돈 육욕 때문에 끊임없이 험한 꿈을 꾸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좀더 잘 살아 보겠다며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자리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자리 주인공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내고, 천당도 지옥도 만들어 냅니다. 마음자리 주인공,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작용을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좌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친하고 싱글고, 살고 죽고, 성하고 죄한 중생세계가 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껌질을 떠오르게 됩니다. 데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꽈개지 되고, 호랑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가 되고, 모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동물,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때 마음을 좋고 또 좋게 써서 보다 높은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운스님은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눈 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한생이 얼마나 되기에도 뒤지 않고 계으르만 부릴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거나, 금생에 도를 닦지 않고 혀되어 죽어버리면 만겁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라."

천년에 한번 바다 위로 나와 바람을 쐬는 눈먼 거북이, 그렇지만 눈이 멀어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걸리는 것이 없으면 도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린 나무토막 하나가 파도를 타고 떠내려와서 거북의 몸에 걸리게 되면, 거북은 얼마동안 휴식을 취한 것이 광우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의 법까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도를 닦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를 닦지 못하고 혀되

이 죽어버리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도를 닦을 인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자세가 흘어지면 처음 도심을 일으켰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정진하다보면 틀림없이 생사를 넘어서는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생명 있는 자를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수만 가지 번뇌와 나쁜 말, 심지어는 나쁜 행동까지 거칠지 없이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결국 갖가지 번뇌에 휘말려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며 짜증을 내면서 살게 되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번

인터뷰

정각사 경원 정사, 정법수 전수



경원 정사



정법수 전수

실천할 때 중생구제는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만, 종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사원에 접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제공해서 자라이 타 정신을 발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스스로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교화방편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현 사회는 기식과 시기, 질투, 탐욕으로 가득차 있어 사람들은 서로간에 원망심을 가지며 자신의 잘못을 헛하지 전에 남의 허를만 보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십시오.

▶ 이 사바세계에서는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도라 하겠습니다. 남이 참아주기를 버리지 말고 내가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즉 사람은 혼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습니다. 남이 나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람들은 부모가 못 났기 때문에, 동료가 잘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우애가 없어서 등 날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남을 모략하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의 진리를 알고, 항상 참회하며 마음속에 마장을 들지 않도록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면서 보람된 일과 힘든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십시오.

▶ 총지종에서 30년 가까이 일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음마니반메훔을 믿고 종단을 위해 봉사하고 수행하시다가 연로하시어 의지할 곳이 없자 본의 아니게 천주교의 보호시설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반평생을 믿어왔던 가정다니리를 떠어 서원당에 갖다 놓고 뒤돌아서 걸어가는 노보살의 발걸음을 보며 그 보살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평생동안 총지종에서 수행하신 노보살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정각사는 총지종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교도수가 제일 많고, 많은 승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행하시는 보살들도 또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남다른 비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총지종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외부의 화려함 보다 자신의 마음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안이비설신의에 의해 느끼고 보이는 것은 한 날 거짓이요,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불상과 목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교에 대한 정확한 교리공부와 수행을 통해 불심과 신심을 고취시키며 확고한 불교관을 정립하고 항상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불교관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생제도를 위해 매일 용맹정진하고 계시면서 한 명의 중생이 불도에 귀의하여 해탈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스승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나름대로의 방편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며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워사람들의 은혜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갚기 위해 노력하는 행을

